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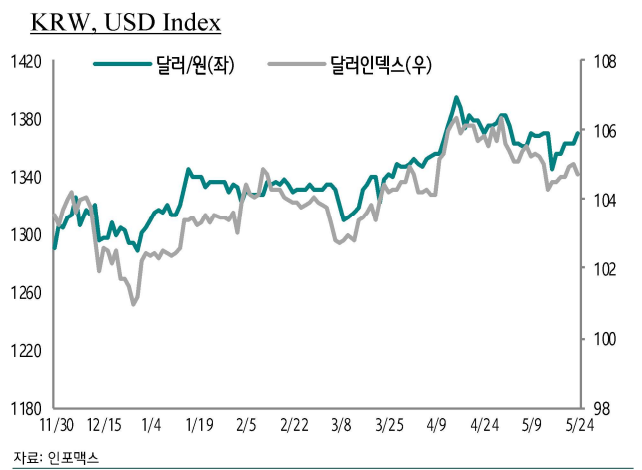
5월27일

[USD/KRW]

USD/KRW 예상 : 1360~1369원
NDF 증가 : 1364.60 (Swap point : -2.25, 1366.85원)

- (금일 전망) 금일 달러/원 환율은 달러인덱스 하락과 위험 자산 선호 심리에 하락할 전망이다. 미국 4월 내구재 수주 증가세가 탄탄한 미국 경제 상황을 재확인 시켜주었으나 미시간대 1년 기대인플레이션이 잠정치 대비 하락하며 연준의 금리인하 지연 우려가 제한됨. 여기에 뉴욕증시에서의 위험 선호 분위기에 힘입은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 가능성과 월말 네고물량 유입 등은 환율 하락 요인으로 판단. 다만, 일본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재고조된 데 따른 엔화 움직임과 중국 4월 공업이익 지표 결과를 반영한 위안화 방향성에 영향 받을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율은 하락 및 1360원대 중반 등락 예상
- (전일 동향) 24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 5월 S&P PMI 호조로 인한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강달러에 6.6원 상승한 1369.0원 출발. 이어 리스크온 약화에 1371.9원까지 고점을 높인 후 전일비 7.1원 상승한 1369.5원 마감

달러/원 환율 상승 요인	달러/원 환율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국 내구재 수주 증가세와 견조한 경제 상황에 따른 경계감엔화 및 위안화 약세의 간접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와 국내 증시 외자 유입 가능성수출업체 매도물량 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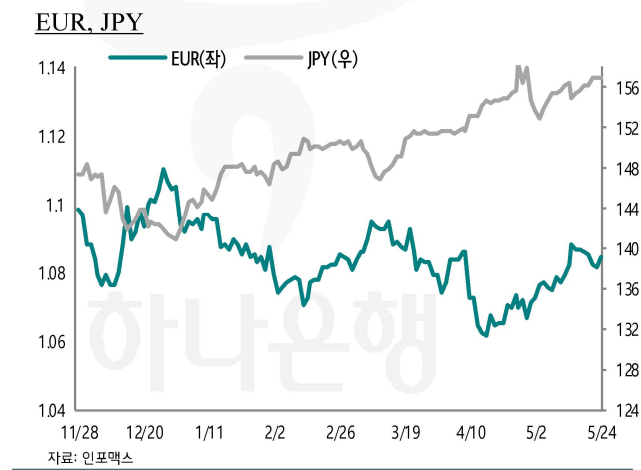
[Global Market]

EUR/USD 예상 : 1.0806~1.0906
USD/JPY 예상 : 156.49~157.39

- (USD Index) 글로벌 금융시장은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최근 달러 상승세에 따른 차익 실현 거래 움직임 등이 나타난 가운데 달러인덱스는 0.28 하락한 104.75를 기록
- (EUR) 유로화는 요아힘 나겔 독일 분데스뱅크 총재가 연속적인 금리인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등 매파적 발언에 가치 반등. 유로/달러 환율은 0.0031달러 상승한 1.0846달러로 마감
- (JPY) 엔화는 일본 4월 근원 CPI 둔화에도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관이 환율의 과도한 변동에 대해 언제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한 영향으로 약세 제한. 달러/엔 환율은 0.07엔 상승한 156.99엔으로 마감

글로벌 통화 동향

구분	증가(전일비)	재정환율(KRW)
USD Index	104.75 (-0.28)	
EUR/USD	1.0846 (+0.0031)	1485.41 (+11.96)
USD/JPY	156.99 (+0.07)	872.29 (+4.11)
USD/CNH	7.2618 (+0.0040)	188.58 (+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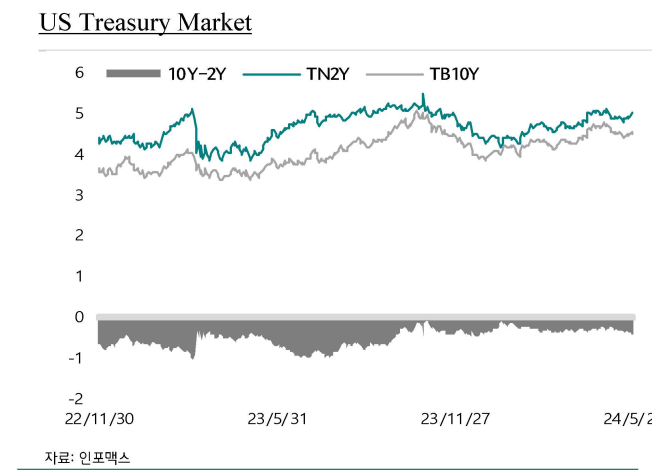
[Macro Analysis]

미국채 장단기 Spread(10Y-2Y) : -48.70bp (전일대비 -2.20)

- 글로벌 경제는 메모리얼데이 휴장을 앞둔 가운데 리스크온 분위기가 지속되는 모습. 미국 4월 내구재 수주는 전월비 0.7% 증가하며 예상치 -0.8%를 크게 상회한 가운데 연속 증가세를 기록. 미국 5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확정치)는 69.1로 이전의 77.2 대비 하락한 반면,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전월비 0.1%p 상승한 3.3%를 기록.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미국 재정정책으로 인해 중립금리가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 미 국채 수익률은 미국 내구재 수주 증가와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등 혼재된 지표에 2년물 1.10bp 상승한 4.957%, 10년물 1.10bp 하락한 4.470%를 기록. 뉴욕증시는 엔비디아 중심의 기술주 상승세에 다우지수 0.01%, S&P 0.70%, 나스닥 1.10% 상승 마감. 국제유가는 최근 연속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에 상승

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

시간	내용	예상	이전
09:05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 연설		
10:30	중국 4월 공업이익 (YoY)		4.3%
17:00	독일 5월 기업환경지수		89.4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